

새時代를 向한 看護의 實現을  
위한 社會 및 行政 參與



<各科研究會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정치, 행정에 참여하므로서 “看護員으로 勝負하는 社會”를 만들어야겠다고 역설하는 필자>

천대받는 여성

『세상에 불쌍한 人生은 우리나라 여편내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쌍한 夫人들을 위해 말하겠다. 사나이 보다 조금도 낮은 인성이 아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나이들이 文明開化가 못되어 理致와 인정은 생각지 않고 다만 자기의 팔힘만 믿고 壓制하는 것이니 어찌야 단에서 다름이 있으리오.

사람이 야만과 다른 것은 正義와 禮法과 義理를 알아 행실을 하는 것이어늘 우리나라 사나이가 여편내 대접하는 것을 보면 情도 없고 義도 없고 禮도 없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대접하기를 사나이보다 천한 사람으로 하고, 무리하게 압제하는 風俗과 억지의 위협으로 行하는 일이 많으니 그 여편내들을 대하여 어찌 불쌍하고 분한 마음이 없으리오.

鄭 光 謨

(한국일보 政治部長 待選  
專門職業女性를 위한 韓國聯盟會 會長)

丈夫라 하는 것은 強하고 교만한 사람을 업신 여기고 弱하고 어러운 人生을 높이고 위해 주는 법인데 여편내 하는 것은 사나이 보다 弱하니 장부의 도리로서 약한 이를 존경하고 위하는 것이 높고 마땅한 일이라. 그런데 우리나라 여편내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권리가 없어졌고 대접받기를 獄에 갇힌 죄인같이 하니 그 사나이들이 무리한 죄상을 생각하던 매우 천하고 패심하니라.

### 制度가 나빠

우리 나라 男女의 행실을 비교해 볼진대 여편내가 사나이 보다 백배가 나은 것이 첫째는 사나이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더 많고 첩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편내중에는 음행하는 일이 적고 간부를 둔 여자도 적은즉 어찌 사나이보다 높고 정결하지 않으리오. 무리한 사나이들이 동속만들기를 자기들은 음행을 하고 장가든 후 첩을 두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아내는 음행이 있던지 간부가 있으면 큰변으로 아니 그런 고르지 못한 일이 어찌 있으리오. 자기 행실이 옳고 정결한 후 자기 아내가 행실이 그러면 그때는 그 아내를 쫓는다던지 법률로 다스리는 것도 마땅하려니와 자기 행실이 그런즉 자기 아내를 책망할 권력이 없는지라 우리나라 사나이중에 음행을 하던지 첩을 두는 자는 음행있는 여편내 다스리는 법률로 다스리는게 마땅하니라.

### 어리석은 사내들 교육

천한 사나이 생각에 자기아내 못 믿어서 문밖에 임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외하는 풍속을 마련하여 죄인같이 집에 가두어 두고, 부리기를 중같이 하고, 천대하기를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니 어찌 분하지 아니하리오. 아내가 죽으면 후취하는 것은 자기들이 옳은 법으로 작정하였고, 서방이 죽으면 게가하여 가는 것을 천하게 여기니 그것은 무슨 의리인지 모를 일이라. 가난한 여편내가 나이 적어서 과부가 되면 개가하여도 무방하고, 사나이도 나이 적어서 상처하면 후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나라 부인네들도 차차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넓어지면 부인의 권리가 사나이의 권리와 같은 줄로 알고 무리한 사나이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부인네들에게 권하노니 아무쪼록 학문을 높이 배워 사나이들 보다 행실도 더 높고 지식도 더 넓혀 부인의 권리를 찾고 어리석고 무리한 사나이들을 교육하기를 바라노라.]

이상은 독립신문 제7호 論說입니다. 1896年 4月21日 이기 이때에도 이토록 進步的인 생각을 지닌 論客들이 있었습니다. 筆者를 찾으면 銅像이라도 세워주고 싶도록 女性解放운동의 先賢者로 制度의 그릇됨을 果敢히 지적, 시정을 촉구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간호원이 생긴 1908年보다도 12年前의 사상이었고 封建制度下에서 갖은 수모를 받은 여성들의 지난날을 그려보면 그것이 곧 간호원들, 여러분

에게는 너무나 아프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 醫師의 協助者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야 할 제목의 “세時代를 향한 간호의 실현을 위한 사회 및 행정참여”는 곧 위에서 男(스스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들에게만 편리하게 만든 많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과 개선후의 성공적인 참여를 계속하기 위한 새로운 戰略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껏 간호원들은 훌륭한 技能職의 專門職業 女性이면서도 허울 좋은 白衣의 天使로서 갖은 수모를 당해 왔습니다. 醫師의 從屬物같이 취급되어 오던 看護員이 補助員으로 바뀌는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은 이제 補助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의 훌륭한 協助者로서 任務遂行을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 看護員으로 勝負나는 社會를

半世紀동안 看護協會는 튼튼한 礎石을 닦아왔습니다. 앞으로 닦쳐올 또다른 半世紀를 위해 우리는 집을 세워야겠습니다. 65년동안 우리는 2만 2천명의 護士를 배출했고, 그리고 간호대학이 늘, 간호학과가 열, 초급학급이 38이 생겼습니다. 배해 3천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YWCA 다음가는 오랜 歷史와 會員을 갖고 있는 간호협회는 앞으로 國民保健을 들론, 어느 病院이든 看護員으로 勝負가 나는 時代를 만들어야합니다.

어느 職業女性보다도 一生을 거는 定着率이 높은 職業의 看護員들은 特殊部落에서 벗어나 새로운 管理方式에 의해 職級 停年 俸給 待遇가

달라져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때문에 손쉽게 成就될 수 있는 몇가지 問題點을 提起하고 具體的이고 보다 많은 것을 특나는대로 協會當局者들과 協議할 시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制度를 바꾸고 政府를 活用하는 前提下에 우선 看護員 스스로가 自信의 開發을 위한. 모임부터 시작해 봅시다.

### 各科研究會

◇事務研究會=사무개선을 合理化시켜야 합니다. 看護員들 스스로가 ④ 醫師와의 팀웍이 잘 짜여져 있는가 ⑤ 醫師나 患者에게 부탁받는 일들은 꼭 필요한 일들인가 ⑥ 浪費的인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⑦ 病院行政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⑧ 殘業은 꼭 해야할 것인가 등등의 題에 마別로 研究해 봅시다. 그리고 問題가 發見 되려는 지체없이 小委員會를 구성하십시오.

◇法律調査研究會=看護員들의 待遇는 ① 어느 法律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가 ② 適切한 配置는 되어있는가 ③ 訓練은 適時에 되어 있으며 ④ 昇進이 막혀 있는 法的根據와 理由는 무엇인가 ⑤ 外國의 法制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⑥ 看護員을 위해 어떠한 法律이 未備되어 있으며 고치야 할 點, 없애야할 法律을 만들어야 할 것 등이 쫓인가.

◇賃金問題研究會=① 各職業의 賃金을 調査 比較하고 ② 看護員의 最低生活保障 平準生活保障은 얼마 程度면 되는가 ③ 外國의 看護員들은 職級, 勤務年限에 따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④ 醫師와의 比較에서 納得이 가는 待遇인가 ⑤ 지나친 差別待遇가 있다면 是正策을 講究합니다.

◇諮問委員會=社會 各界人士를 中心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構成하십시오. 女性이 아닌 男性들을 中心으로 하는 것이 効果입니다. 強力한 영향력이 있는 有力人士들의 모임은 여러분들의 對政府建議, 社會的인 애드사항에 부닥쳤을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智慧와 智慧롭게 사는 方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社會團體와의 交流=國內外에 있는 女性, 男性 各種團體와의 交流를 活潑하게 가지십시오. 이같은 交流는 看護員들의 認識을 새롭게 하여 社會進出에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團體間的 理解는 個人接觸으로 얻는 利得에 比較가 되지 않으리만큼 크며 빠릅니다. 看護協會에 存在를 強力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運動이 展開되어야 합니다.

◇政府 各委員會 멤버로 參與=政府에는 수많은 研究, 調查 活動者의 委員會가 많습니다. 看護員이 參與가 可能한 모든 委員會의 멤버가 됩시다. 그래야만 保健, 衛生, 醫療行政은 勿論, 地域社會 開發에 積極적으로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는 發言權이 생깁니다.

◇政治에의 參與=看護協會는 여성단체 중에서 가장 壓力團體役割을 할 수 있는 實力있는 모임입니다. 거의 같은 레벨의 同格의 免許소지자, 이 같은 모임은 어느 여성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實力團體입니다. 看護員들의 地位向上은 勿論, 醫療 保健行政에도 果敢히 參與하려면 政治에의 발돋움도 하나의 획기적인 方法이며 지름길입니다.

◇行政에의 參與=看護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看護員으로만 勤務할 필요가 있음니까, 政府 各機關에 사무직으로 근무한다면 간호원의 社會 인식은 물론 간호행정 合理化를 위한 뒷바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看護學을 한

사람이 新聞記者가 되니 家庭欄의 育兒保健, 衛生등을 담당한다. 또 英文學 國文學등을 한 사람이 취급하는 記事와 어느 쪽이 專門의인가는 自明한 일입니다.

◇保健所長 代替運動=全國의 保健所長을 점차적으로 看護員들로 代替하는 運動을 벌여야 합니다. 이것은 대히 看護卒業生들중 30%밖에는 취직이 안되는 實情에서 바람직한 일들입니다. 더우기 政府의 無醫村해소 政策에 부응하여 實現可能性은 요원하지만 無看護員村해소 政策에도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才能銀行設置=專攻은 看護學이지만 看護員들이 지니고 있는 先天 後天의 才能, 能力등 優秀한 看護員에게는 才能에 相당한 자리를 구해주는 일은 바람직한 協會의 일입니다. 男女區別 없이 實力主義 能力主義로 나갈 수 있는 理想的인 實現을 위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그만 일들의 細分化란 研究에서 이뤄집니다. 간호저식유포대묘한 職業女性像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주세요.

### 亂時엔 女性의 값올라

대개 亂時에는 女性의 값이 올라갑니다. 世界 第2次 大戰때 英國은 7割4分, 佛蘭西는 8割3分, 獨逸은 9割의 男性이 召集되었었습니다. 이때 各國의 女性들의 地位와 活躍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란 戰時가 끝나면 女性들의 向上되었던 地位는 다시 달라집니다. 그러니 歷史에 參與한 女性의 발차치는 우리들의 구감으로 勇氣를 불러 일으킵니다. 難時만은 여성이 제구실을 했음을 우리는 歷史에서, 똑똑히 깨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韓國의 看護員像은 3·1운동 때의 示威行列속에서도 悲壯한 表情으로 負傷者들을 간호하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1919年 3月 5日 서울에는 2次의 市街行列이 있었습니다. 서울驛 앞에서 明倫入口까지 사람으로 메워진 거리에는 無慈悲한 日警의 銃劍이 亂舞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市民들은 銃劍으로 맞아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흰 가운을 입고 한손에 들것을, 한손엔 붉은 旗를 든 간호원 수십명이 세브란스病院에서 나왔습니다. 길 양쪽에 비통한 表情으로 군중들을 엄호하며 거니는 모습에 市民들은 박수를 보였습니다. 간호원들은 단순히 국제적십자 정신에 의한 간호정신만이 아니라 구국에 앞장선 결사대의 결의를 역역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生産的인 看護行政

지금 우리나라는 소리없는 戰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銃소리는 없지만은 南北赤十字會談, 共同調節委員會는 단순한 會談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유신이다 새마을이다 100억달라 수출이다, 우리는 3·1운동때 붉은

旗를 들고 決死隊의 隊列속의 先驅들을 回想해 봐주시요. 生産的인 看護行政, 愛情있는 管理方式이 여러분들에게 응분의 대접을 해 줄 것이며 世上은 看護員으로 勝負가 내려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한가지 최근에 가슴이 뭉클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않습니까? 언젠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좌천을 시킨 前메디칼센터 간호과장 유순환 선생님이 훈장을 받은 사실입니다. 비록 정부의 비위를 거슬러 좌천을 시켰을 방정, 功은 功대로 認定하여 나라의 훈장을 준 政府處事에 우리는 拍手를 보냅니다. 感情은 感情이고 功勞는 功勞대로 認定해준 勇氣와 決斷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나 외롭게만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貴族出身의 나이팅게일의 無條件의 奉仕도 無理하게 強要하지말은 않을겁니다. 高貴한 人間의 生命을 온몸과 마음을 바쳐 감싸 주는 看護員 여러분들에게 協會創立 50周年을 맞아 충심으로 祝賀말씀 드리며 여러분들과 機會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Badge 판매<



섭외공보부에서는 본회원들을 위해 본회 마크로된 배달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niform 및 일반의상에도 착용할수 있으며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신학교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공동체라는 유대의식을 갖게 된다.
2. 해외에 체제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하고 고국의 협회활동을 인식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3. 가격 (개당 300원)
4. 신청방법 각지부및 본회섭외공보부에 신청한다.